

거룩한 부인, 여왕, 동정녀이며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여!



" 거룩한 부인이며 여왕이시여, 하느님의 성전이 되신 동정녀여,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하늘에 계신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당신을 간택하시어, 그분의 지극히 거룩하시며 사랑하시는 아드님과 협조자이신 성령과 함께 당신을 축성하셨나이다. 당신은 온갖 은총과 온갖 선이 가득하셨으며 지금도 가득하시나이다." 성 프란시스

"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여, 지금 저에게 어머니가 되어 주십시오." 복자 마더 테레사.

사랑하는 국가형제회 가족여러분, 주님께서 저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국가형제회 회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쓰는 이 기사에서 저의 어머니, 여러분의 어머니이시고, 우리회의 어머니시며 다섯 번째의 복음이신 성모님께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물론 우리들은 네 개의 복음서의 이름, 마태, 마가, 루가와 요한을 알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들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섯 번째 복음서의 이름, 마리아를 알고계실까요?

마리아는 하느님께서 그녀의 생애를 통하여 쓰신 복음입니다.

우리 각자도 마리아처럼 복음을 살도록 불림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신앙적으로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성령에 의하여 예고되고 그녀의 자궁에 임신한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신봉자입니다.

우리 재속 프란치스코 회칙은 우리에게 특히 복음을 자주 읽어서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복음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 복음으로서, 첫 신자로서, 우리 어머니로서 마리아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복음서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만나도록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재속 프란치스코 회칙 제 9 조는 우리 사부이신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성모님을 극진히 사랑하셨음을 이야기 합니다. "프란치스코는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성모님을 맞이하고 그녀를 그의 가족의 보호자이며 옹호자로 선언하였습니다. 재속 프란치스코는 성모님의 온전한 자기희생을 본받고 진심으로 확신을 갖고 기도함으로써 성모님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학자들이 성 프란치스코 와 직접 안면이 있으리라 확인한 첼라노의 복자 토마스가 다음과 같이 쓰고 칭송하였을 때 우리회칙을 지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극히 위대하신 주님을 우리의 형제로 만드신 분이 성모님이시기 때문에 성 프란치스코는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는 성모님을 특별히 칭송하고, 그녀에게 끊임 없이 기도를 드렸고, 사람의 혀로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녀에 대한 크고 많은 애정을 나타냈다." 그러나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그 [성 프란치스코]가 그녀를 우리회의 옹호자로 만들고 그가 곧 떠나 가야 할 아들들 (프란치스코 회원)을 끝까지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도록 그녀의 보호아래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 가난한 자의 옹호자여! 아버지께서 정하신 시간까지 우리의 옹호자로서의 책무를 수행 하십시오."

저의 어머니를 지난해 잃고 제 자신도 이세상을 떠나게 될지도 모르는 이 시점에서 저는 성모님에게 더욱 더 마음이 끌립니다. 저는 위안이되는 그녀의 현존을 느끼며 그녀에게 기도할 때 마다 깊은 평화를 찾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아무도 전신 마취를 필요로 하는 큰 수술을 받지 않게 되기를 기도 합니다. 저의 소장이 짧아지고 (의사의 말), 제 몸에서 굳은음식을 처리할 수 없게 된 때인 지난 6 월까지는 저의 건강은 항상 좋았습니다. 어머니이며 부인이고, 가톨릭 신자인 한 훌륭한 여성 외과 의사가 10 개의 작고 덜 위험한 종양은 나중에 치료하기로 남겨놓고 4 개의 위험한 종양을 제거했습니다. 남겨진 종양들의 조직검사 결과는 의사들이 걱정하던 모두 다 전이된 흑 종 (melanoma)임이 드러났습니다. 이 흑 종은 2005 년에 저의 등에 작은 점으로 처음으로 나타났고 쉽게 제거한 것 입니다.

병원에서 제가 수술 후에 몽롱한 상태로 깨어날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란 묵주기도를 하고 성모님과 이야기 하는 것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기도들이 평화를 주었고, 주고 있으며, 항상 평화를 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아메리카 대륙에 살면서 저는 성 후안 디에고에게의 성모님의 발현과 과다루페의 성모 마리아로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틸마에 남겨놓은 그녀 자신의 기적적인 이미지 그리고 그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항상 특별히 공경해 왔습니다.

이 발현의 역사, 틸마위의 이미지의 기적과 후안과 성모님과의 대화에 대하여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 신앙 양성과 위로를 위하여 온라인 이나 다른 방법으로 알아볼 것을 권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머니이며 저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더 많은 기도와 공경을 드릴 것을 저는 권합니다. 저는 예수성심, 성 프란치스코와 성 안소니 상본과 함께 과다루페의 성모 마리아 상을 제몸에 항상 지니고 다니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글을 쓰고 있는 저의 침실에 오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녀와 그들을 곧 발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저는 성모님께 매일 기도하고 그녀는 항상 저를 그녀의 아들께, 평화로움으로 가까이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이 저의 충고를 원치 않으시면 제가 좋아하는 20 세기 프란치스칸 성인중의 한분인 막시밀리언 콜베 OFM Con 신부의 충고를 드립니다. 저는 폴란드의 Niepokalanow 에 있는 그분의 성지, 교회와 기념관을 모두 방문했고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분께서 다음과 같이 쓰셨습니다.

"마리아의 의지가 하느님 자신의 의지를 우리에게 나타낸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그녀에게 봉헌함으로써 우리들은 그녀가 하느님의 손에서 그러한 도구가 된 것처럼 그녀의 손에서 하느님의 자비의 도구가 될 것 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마리아에 의하여 이끌리고 인도되도록 하고 그녀의 보호하에 조용히 그리고 안심하며 휴식하여야 합니다. 그녀는 우리를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에 필요한것에 응답하십니다. 그녀는 우리의 어려움과 걱정을 해소시켜 주실 것 입니다."

물론 우리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저와 여러분 또 모든 피조물을 위하여 계속 배려하시고 기도하십니다. 2015 년 5 월 24 일 지난 성령강림 주일에 프란시스 교황께서 그의 아름다운 회칙 "Laudato, Si" (오 주님, 찬미 받으소서)의 "#241 구절"에서 우리와 함께 나눈바와 같이 성모님은 "예수님의 온 생애를 그녀의 가슴에 새기"며 다섯 번째 복음으로 계속 남아계십니다.

" 예수님을 돌보신 어머니 마리아여, 어머니의 애정과 고심으로 이 상처 입은 세상을 돌보소서. 그녀의 찢린 가슴이 예수님의 죽음을 애통해 하신것 같이 성모님은 지금도 억눌린 가난한 자의 고통과 인간의 권력에 의해서 황폐된 이세상의 피조물 때문에 애통해 하십니다. 완전히 변모되시어 그녀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계시며 모든 피조물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찬미합니다. 그녀는 태양을 입으시고 달을 발밑에 두시고 머리에 12 개의 별이 있는 관을 쓰신 바로 그 여인이십니다. (묵시 12:1).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그녀는 모든 창조물의 어머니이며 여왕이십니다. 창조물의 일부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녀의 영광으로 빛나는 몸에서 아름다움의 극치에 도달 하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전 생애를 그녀의 가슴에 새기고 (참조. 루카 2:19,51), 이제 만물의 의미를 이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의 눈으로 이세상을 볼 수 있도록 그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의 영원한 사랑, 감사와 기도를 바치며, 어려움에 처할 때 (요즘에는 빈번히) 제가 읽는 성모님과 성 후안디에고 와의 대화를 여러분에게 남기게 해주십시오. "나는 완전하고 영원한 동정녀 마리아 이며 진정한 하느님의 어머니임을 확실히 알기 바란다 ... 여기서 나는 내 사랑, 연민과 보호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줄 것이다. 나는 너의 자비로운 어머니, 나를 사랑하는

이, 나에게 부르짖는 모든 이, 나를 신뢰하는 이들의 어머니이다. 여기서 나는 그들의 눈물
흘림과 슬픔...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불행을 들어 줄 것이다 ... 이 내 말을 듣고 마음에 파고
들도록 하라.

"슬픔으로 괴로워하거나 짓눌리지 마라. 어떠한 병이나 고민거리, 불안이나 고통을 두려워 말라.
너의 어머니인 내가 여기있지 않느냐? 네가 나의 그늘과 보호하에 있지 않느냐? 내가 너의
생명의 원천이 아니냐? 네가 나의 망토의 보호안에 있지 않느냐? 내 팔짱을 낀속에? 이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